

I. 서 론

공 백

I. 서론

불과 몇 년전만 하여도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멋진 신세계’를 열어주는 만능 열쇠였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새롭고 멋진 도구를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을만큼 빠른 속도로 높은 수준의 정보화를 이룩한 나라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화 기반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보장해 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인터넷은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폭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원자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2000년말 “자살이 생각날 때(한겨레신문, 2000. 12. 15)”란 한 인터넷 사이트를 매개로 해서 발생한 동반 자살 및 청부 자살 사건은, 생산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마저도 손쉽게 충족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임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살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자살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살 사이트”가 등장하였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자살 사이트로 인한 첫 번째 희생자가 언론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된 이후,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은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극적 내용에 힘입어 메시지 전송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유행되었다.

자살 행동에 노출될 경우 모방 자살이 시발될 수 있기 때문에(Marsden, 2001), 미디어를 통해 자살 사건이 기술되고 보도되는 일련의 일들은 그 자체로서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Hawton & Willams, 2001). 인터넷이 기본적 미디어가 되어 가

고 있는 현 사회에서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매개체로 한 자살은 시공을 초월한 빠른 확산 속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온라인 상에서의 교류가 곧바로 대면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터넷의 속성은 자살 행동을 위한 만남 또한 “인터넷 번개”처럼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었고, 결국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자살 사이트는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희생자들을 발생시켰다. 처음 6개월간 총 25명의 피해자가 자살 사이트로 인해 발생하였으며(문성원, 2002a), 최근까지도 자살 사이트를 매개로 한 자살 사례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한국일보, 2003. 8. 31). 그러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와 정부의 대응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자살 사이트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는 아직도 거의 전무하며 정부는 단지 자살 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만을 감행하였을 뿐이다. 자살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는 자살 사이트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표방하는 사이트만을 감소시켰을 뿐,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의도한 대처 방법이 그 의도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유발했다는 사실은 자살 사이트 문제를 바라보는, 혹은 자살 사이트 문제로 대표될 수 있는 인터넷의 역기능적 이용에 대한 접근이 잘못 되었음을 보여준다(문성원, 2002a). 희생자들은 인터넷과 관련된 심리적 기제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관리나 조절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 심지어는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 인력들은 대부분 인터넷과 관련된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까닭에, 인터넷의 역기능적 이용에 관한 현행의 정책이나 접근들은 문제의 핵심과 동떨어져 있을 수 밖에 없다.

자율성, 독창성, 다양성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인터넷 세상

에서 자살 사이트를 비롯한 특정 형태의 일탈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규제의 범위를 뛰어넘어, 자유롭고 독창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 출현에 대한 기틀을 제공할 뿐이다. 문성원(2002b)의 연구에 따르면 일탈의 형태에 따라서 일부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상당 부분 유사한 동기와 배경에 의해서 각종의 역기능적 행위가 등장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일탈이 어느 정도 비율로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규제하는가가 아니라, 일탈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일탈의 원인을 찾는 일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질적 접근을 시도하여 사례의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변인을 탐지해내고 이를 통해 역기능의 출현 방향을 예측해내는 일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사이트와 같은 특정 사례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 가져올 수 있는 함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클 수 있다.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의하여 매개된 자살은 자살에 대한 일반적 접근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동기를 비롯하여 접속 이후의 과정들이 모두 자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문성원, 2002a).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될 때에야 비로소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가능하다.

자살 사이트 문제는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대응의 그늘에서 조용히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성인/자살 사이트 접속율은 25.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전자신문, 2001, 10, 10) 현재도 초중고생 응답자의 13.9%는 자살 사이트나 자살 커뮤니티 방문 경험이 있었다(전자신문, 2003, 10, 15).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많지만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여 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층은 자살 사이트의 주된 희생자이다(문성원, 2002a).

청소년층의 빈번한 희생에 대해서는 Baume, Cantor 와 Rolfe(1997)에 의해서도 일찍이 언급된 바 있다. 그들은 상호작용적인 자살 노트가 게시된 후 발생한 자살 사례를 통해, 인터넷의 잠재적 영향력이 자살 사고를 타인과 공유하려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자살 행동에 관련하여 인터넷의 복합적 작용에 특히 취약한 것은 젊은 사람들임을 밝혔다. Alao, Yolles 와 Airmanta(1999)도 자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은 자살 시도 2건을 다루며, 16세 소년의 사례를 포함시켰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가장 활발한 이용자층의 하나로서, 정보기술에 대한 활용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을 만큼의 심리적 강건성을 갖추지는 못했기 때문에, 특유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아무런 사전 준비없이 인터넷의 무한한 잠재력과 결합될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생각이상으로 파괴력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자살 사이트의 한 여성회원을 다른 남성회원이 살인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YTN, 2003), 현재의 자살 사이트 현황이나 그 세부적 특징들에 대한 조금의 이해도 없이 단지 자살 사이트에 대한 폐쇄 정책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위험한 대응일 수 있다. 무방비 상태로 잠재적 위험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이제는 자살 사이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상황 인식은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마련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살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해 있는 자살 사이트들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고, 어떠한 심리적 기능 때문에 그들 사이트들이 유지되고 있으며, 운영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있고 그들은 어떠한 심리적 동인에 의해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다면, 향후 문제의 진행 양상에

대한 추측과 그에 대한 예방책의 마련은 보다 용이해진다. 그러나, 이들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주로 채택하여 온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는 개인 중심의 사회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대량생산 체제의 '인간 발달'의 틀로 더 이상 다 품종 소량생산체제, 디지털 시대 아이들을 연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조한해정, 2000). Jones(1999)도 여러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지금까지 인터넷이 아닌 다른 매체를 중심으로 사용하여 온 연구방법론이 현대 사회속의 인터넷을 연구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일찍이 지적한바 있다. 새로운 매체는 기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약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가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맥락은 전통적인 연구 설계, 방법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다(Rice & Rogers: Jones, 1999에서 재인용).

인터넷으로 인한 문제들은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 사례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주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엄격히 통제된 양적 연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개별적인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주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가 있다. 더구나, 자살 사이트 문제의 경우에서 처럼 희소성도 높고 치사율도 높은 경우는 관련된 각각의 현상을 단지 정확히 기술해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외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방법론을 갖추려고 하는 동안 상황 자체는 새롭게 변형을 거듭하며 분화하여 해당 연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기가 쉽기 때문이다. 전통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경직된 요구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 실정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

인이다.

또한, 인터넷 관련 현상들을 다루는 일은 익명성 및 사생활 보장의 문제에 대해서 오프라인 세계에서와 달리 더욱 민감하게 얽혀져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금기시된 행동을 하는데 커다란 매력으로 작용하여 손쉽게 문제 행동을 유발해내지만, 그러한 문제 상황을 분석해 내는데는 상당한 장애물 역할을 한다. 인터넷 자체가 본질적으로 개인을 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시킨 이상의 정보를 얻어내기 어렵다. 자료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이상의 정보를 얻기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면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수 있으며 인위적이고 방어적인 자료를 얻게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인터넷과 관련된 상황들은, 인위적인 설문 의 틀속에서 보다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만큼의 자료를 분석해내거나 자연스러운 관찰 혹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더 많이 이해될 수 있다.

문성원(2002a, 2002b)은 자살 사이트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인터넷 관련 역기능 연구에 관한 창조적 기틀을 제공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자살 사이트의 희생자들은 전통적인 자살 연구들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상당 부분은 인터넷의 내현적인 심리적 기능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서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희생자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살 사이트 그 자체 혹은 생성의 주체를 통해서 자살 사이트 문제를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 사이트와 관련된 현황을 구체적

으로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살 사이트의 기능과 그 운영 및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희생자 연구들이 제공하지 못한 관점, 즉, 인터넷의 기능을 창출해내는 동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과 관련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단 자살 사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역기능적 인터넷 이용 예방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닐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네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이 인터넷에서 발생한 일시적 유행과도 같은 것인지 아니면 자살의 한 방법론으로 자리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 피해자 발생후 6개월간의 사건 분석(문성원, 2002a)에 이어 보다 장기간에 걸친 사건 발생을 관찰하고자 한다. 관찰된 사례들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분석과 더불어 시점에 따른 사건 발생 빈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자살 사이트 생성의 주체인 운영자 면담을 실시하고자 한다.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들에 대한 현황 분석은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의 여러 특성들을 알 수 있게 해주기는 하지만 해당 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구체적 역동이나 자살 사이트의 생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들과 관련된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들과 면담을 할 수 있다면,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운영 그리고 이용에 관한 매우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자살 사이트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자살 사이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상에 여

전히 자살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자살 사이트들에 대한 형태 및 기능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자살 사이트의 진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동시에 잠재적 자살의 수효 추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 관련 변인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살 사이트들에 대한 기능 분석을 활용한다.

II. 자살 사이트의 정의와 역사

1. 최초의 자살 사이트
2. 자살 사이트의 정의와 종류
3. 자살 사이트와 관련된 국내외의 대응들

공 백

II. 자살 사이트의 정의와 역사

1. 최초의 자살 사이트

가장 대표적인 자살 사이트인 ASH는 휴가철에 자살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이 1991년에 만든 usenet 게시판(alt.suicide.holiday)에서 비롯되었다. ASH는 처음에는 뉴스그룹으로 시작되어서 이후 대화방과 안내 파일(guide files)들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안내 파일들에서는 아스피린에서 쥐약에 이르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을 방문자들에게 알려주었다(Scheeres, 2003). "몇몇 방법들은 약물의 사용량이 너무 적게 표시되어 있어 위험하다"라는 경고문으로 시작되는 ASH의 '자살방법'들은 약물들의 쓰임새와 적정량, 사용방법, 성공의 정도를 과학적이고 의료적인 태도로 세세하게 나열했다(조희제, 2001).

또한, 주축을 이루는 뉴스 그룹에 덧붙여 일종의 온라인 일기장에서는 그 참여자들이 불행한 느낌을 털어놓고 서로의 자살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곳의 방문객들은 장례일정이나 유서쓰기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살 유형의 고통 정도와 치명도를 계산할 수 있는 고통 계산기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Scheeres, 2003).

ASH FAQ(ASBS, 2001)에서는 이 사이트를 "자살을 금기시하는 문화에서 자살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 정의했다. ASH의 자살 찬양 경향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트롤"로 불렸으며, 사이트에서 적대시 당했다. 자신의 아들이 그 뉴스그룹에 합류한 후 자살을 한 것에 대해서 글을 올린 아버지

조차도 용서되지 않았다.

2. 자살 사이트의 정의와 종류

자살 사이트란 이른바 자살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자살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자살의 예방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이른바 ‘anti-자살 사이트’들에 비해서, 자살 사이트는 자살에 대해서 긍정적인, 즉, pro-자살 사이트이다.

pro-자살 사이트의 원형은 최초의 자살 사이트라고 불리워지는 ASH(alt.suicide.holiday)이다. ASH를 포함한 자살 사이트들은 시공의 제약없이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익명성하에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손쉽게 메시지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생각들에 대해서도 손쉽게 누군가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자살 사이트들은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교환을 도와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몇해전부터 ‘엽기’가 새로운 유행어로 떠오르면서, 자살 사이트들은 ASH류의 전통에 덧붙여서 한편으로는 엽기를 추구하는 흐름의 한 일부로서도 그 활동을 시작했다. 새 우리말 큰사전(1986)에 따르면, 엽기란,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남달리 흥미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통용되고 있는 엽기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엽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대개의 경우, 더러움, 잔인함, 광기 혹은 지독한 냉소주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내용을 다

른다고 하여도 남들의 주목을 끌만큼 매우 자극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즉, 공개적 언급이 금기시되는 주제들, 배설물이라든가 죽음 혹은 성에 관한 내용이 노골적으로 다루어지는 일이 많다. 따라서, 잔혹함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는 웹사이트에서는 대개의 경우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루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자살에 관한 것도 포함되게 된다.

자살 사이트의 탄생과 엽기 문화는 모두 사이버 공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맥락 단서가 풍부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 사람들은 그 정보를 모두 인식하면서 대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문성원 외, 1999).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맥락 단서가 대면 조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평범한 메시지는 상대방의 주의 자체를 끌어내기가 매우 힘들고, 상대방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만한 메시지는 그와는 반대로 집중적인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극적인 메시지만이 생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자극적인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이버 공간에서 엽기가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고, 가장 자극적인 소재중의 하나인 죽음은 당연히 엽기 문화에서 중요한 재료이다.

pro-자살 사이트의 다른 한 부류는 죽을 권리에 대한 옹호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심리치료자에 의해 입원 조치가 내려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자신들을 항변한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자살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신 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들 집단들이 실

제로는 우울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cheeres, 2003). 인터넷상에는 자살을 긍정적으로 옹호하고, 정신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뉴스 그룹이나 게시판이 많이 있다. 국제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해외의 자살 사이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살을 감행하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이 사이트들은 정신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일은 유해 무익한 것이라면서 그와 같은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Dobson, 1999). 실제로, Gonzales의 사례를 보면(Smith, 2003), 그녀가 방문했던 자살 사이트에서는 자살은 그녀의 절망을 끝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녀에게 말해주었으며 치사량의 청산칼륨을 얻는 방법과 그것을 칵테일에 섞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한편, pro-자살 사이트와 대비될 수 있는 anti-자살 사이트(안티 자살 사이트)들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찾아와서는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나가도록 한다는 개설 목적을 가지고들 있다. 안티 자살 사이트는 자살 의도를 밝히는 글에 대해서 소위 “리플”이라고 불리는 응답을 달아주며 관심과 심리적 지지를 보내는 일이 가장 주된 활동이다. 때로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집중적인 지지와 격려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중에는 사이트에 남아서 처음에 운영진이 자기에게 했던 것과 유사한 역할을 자처하며 ‘안티자살’ 활동, 즉, 자살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살 사이트를 매개로 하여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고 중도에 포기한 이의 사례(문성원, 2002a)에서,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써주었던 고마운 글이 큰 위안이 되었기에, 결국 자신이 받았던 것과 유사한 위로와 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안티 자살 활동을 한동안 벌이기도 했다고 밝힌바 있다. 자살 사이트에 대한 강제 폐쇄 조치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발한 사람들은 안티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심리적인 지지를 얻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안티 자살 사이트라고 해서 전적으로 긍정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진의 의도나 사이트 전체의 경향성이 안티 자살일뿐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까지도 안티자살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진이 미처 응답을 다 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글이 등록되는 과정에서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들끼리 연락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방법론을 알려주는 글이 게시될 수도 있다. 다양한 의도의 사람들이 안티자살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교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자살 사이트 매개 동반 자살건중 일부는 자살방지사이트에서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었다(한국일보, 2000. 2. 2 ; 경향 신문, 2002. 2. 24 ; 한겨레 신문, 2002. 4. 19). 정신건강 전문가가 개설했던 안티 자살 사이트 또한 공개 게시판을 개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설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살을 위한 의견 교류의 장으로 활용된 바 있다.

안티 자살 사이트인 B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체 메일을 발송한 적이 있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게시판에 같이 자살하자는 글을 올리구나서... 연락이 오구 만날 장소까지 정한 후에 나오지않는 님이 있다는군요...” 동반 자살 의도를 타진하는 글은 무조건 발견 즉시 삭제한다는 방침이 있었으나, 운영진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몇몇 회원들이 이미 위험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 자살 사이트와 관련된 국내외의 대응들

우리나라의 경우 뒤늦게 정보화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인

터넷 이용자수에 있어서 세계 제 3위(통계청, 2003)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정보화가 진행이 되면서 해외의 정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이트들은 자살 사이트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해외의 사이트들에는 자살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아직 풍부한 상태이다.

경제적 불황과 더불어 자살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일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낯선 사람들과 자살 계약을 맺고 실제 자살을 감행한 사례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상당수에 달했으며, 그 방법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다(Faiola, 2003). Connell (2003)의 자료를 보면 가스를 이용한 일본의 인터넷 매개 자살 사례가 세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Gonzales(Scheeres, 2003)의 사례 또한 그가 어떤 자살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내용의 상호작용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잘 설명되어 있다. Gonzales는 별 도움이 안되는 항우울증 치료제 복용에 대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언급했으며, 자신은 지지적인 가족과 충분한 돈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훌륭한 친구들이 있고, 아주 마르지도 않았고 또 뚱뚱하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일뿐이며, 그저 피곤하고 잠을 자고 싶을 따름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응급 구호 체계 자체가 없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살 의도를 관찰해도 달리 대처할 방안이 없다. Janson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두 건의 자살 시도가 관찰되었으나, 각각 인터넷 사업자와 친구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전에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자살 의도를 관찰한다고 하여도 그 사실을 누구와 상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없고, 설명

전문가가 연락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법적 연계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살 사이트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다. Baume 등(1997)이 인터넷과 자살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하던 시점에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조차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만큼, 우리나라에서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의 피해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 확산에 속수무책 상태로 있었던 바 있다.

공 백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공 백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개시 시점까지 발생한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와 자살 사이트 매개 비행중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례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 및 경향 분석

1) 대상

2003년 8월 31일까지 언론에 공개된 자살 사이트 관련 사례들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Naver, Yahoo, Empas 등의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자살 사이트”라는 키워드를 활용한 뉴스 검색을 실시하여 자료를 얻었다. 언론사별로 자료 공개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기사라고 하여도 언론사 별 기사를 모두 비교하여 가장 공개수준이 높은 자료를 최종 자료로 선택하였다.

2) 절차

취합한 최종 자료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자살유형, 방법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어서 시점에 따른 사건 발생을 조망하였다.

2. 자살 사이트의 운영이나 이용에 대한 사례 탐색 및 내용 분석

1) 대상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살 사이트 운영자를 첫 번째 대상으로 하려 하였으나,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낼 수 없었던 까닭에 접근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 여러 유관 기관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사생활 보호의 이유로 언론에 공개된 것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이슈화된 사건들과 관련된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를 접촉하려는 시도는 중단했다.

다음 단계로, 면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살 사이트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통하여 직접 모집을 시작하였다. 여러 인터넷 게시판과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상자 모집 활동을 벌였으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모 대학 게시판을 통해 한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왔지만 답장을 하면 다시 연락을 받기까지 수일이 걸릴 만큼 의사소통 자체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여러 차례의 이메일 끝에 원하는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면 이메일을 통해서 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담긴 이메일을 받아보니 자살 사이트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인 인터넷 이용 경험 자체가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해당 이메일의 내용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구 기간 전체에 걸쳐서 면담에 응하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온라인 모집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프라인 모집에 대해서 지원한 해당 지원자는 대면 상황에서 직접 연구자에게 면담에 응할 의사를 밝혔다. 자살 사이트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이슈화된 사이트들 이외의 자살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면담을 시도하였다. 자살 사이트의 대부분이 표면적으로는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가 실제 회원으로 가입하였던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해당 안티 자살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내의 인터넷 커뮤니티로 존재한 바 있다.

2) 절차

두 명의 면담 대상자를 찾아내는 일이 각각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서로 다르게 이루어졌으므로 면담에 이르는 과정과 실제 면담의 진행 과정 또한 제 각각 서로 달랐다.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은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면담에 응할 의사를 밝힌 만큼, 면담에 편한 의사소통 채널을 택하라고 하자 대면 조건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중단되기까지 각각 약 50분간 두 차례의 대면 면담을 개방형 질문 중심의 비구조화된 면담(Fontana & Frey, 1994)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운영진과 자살 사이트에 대한 탐색이 면담의 주요 주제였다.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면담을 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연구자가 신분과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만나자는 뜻을 이메일로 전하자 대면 만남은 곤란하나 온라인상을 통해서 질문을 할 경우 답을 하겠다는 이메일 답장을 보내왔

다. 연구자는 저녁 시간에 온라인 대화방에서 만나는 것을 제안 하였으나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당시 집에서는 인터넷을 할 사정이 되지 않고 늦은 시간에 PC방에 가는 것 또한 불편하다고 하였다. 시간을 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시간을 묻자 해당 답변 대신 특별히 시간을 내야하는 가를 다시 질문해왔다.

저녁 시간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근무 시간중에 회사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하며 필요한 것을 질문 하라고 하여 연구자가 인적 사항부터 시작해서 사이트 개설 동기 및 개설 과정, 해당 사이트가 표방하는 존재 목적, 개설 당시에 표방한 목적과 현재의 모습이 부합되는 정도, 이용자들의 인구학적 분포,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과 가장 보람을 느끼는 점,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들을 대할 때의 심정, 회원들이 자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들, 자살을 감행하게 되는 회원 특성, 자살 사이트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점 등을 질문하였다. 회사에서 답을 해야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며 전체 질문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답을 해왔다. 자신에 대해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도,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혹시나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냐며 반문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으나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다.

답변이 생략된 문항도 많았고 답변 자체도 너무 간단한 부분이 많아서, 결국 연구자가 운영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추가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시간을 길게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답변을 얻어내는 것에서 시작해서 자살 사이트의 심리적 기능과 유지 요인, 이상적인 안티 자살 사이트의 형태, 자살 사이트 문제를 대하는 정부나 전문가들의 입장에 관한 본인 생각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면담을 완료했다. 자살 사이트의 기

능에 대해서는 면담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국내외 검색 엔진 혹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자살 사이트 검색 및 분석

1) 대상

검열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잔류하고 있는 자살 사이트와 자살 커뮤니티를 검색하였다. 자살의 촉발을 목표로 하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자살의 예방을 목표로 하는 사이트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2) 절차

먼저, 국내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자살 사이트”, “자살” 혹은 “안티 자살”, “자살 예방” 라는 키워드 검색으로 발견되는 자살 사이트를 방문하고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구성에 대해서 심리적 측면의 기능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내에서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위의 키워드 뿐만 아니라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를 이용하였다.

4.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및 기타 역기능적 인터넷 이용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변인 탐색

1) 절차

운영자에 대한 면담 자료를 토대로 자살 사이트 및 안티 자살 사이트의 기능중 순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변인을 탐색하였다.

IV. 결 과

공 백

IV. 결 과

1. 연구의 개시 시점까지 발생한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와 자살 사이트 매개 비행중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례에 대한 개괄적 분석

1) 연령/성별/자살유형/자살방법에 대한 분석

(1) 인구학적 분석

자살 사이트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자살과 비행중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총 25건이었으며, 이와 연관된 사람들은 모두 53명이었다. 연구에 포함된 사례에 대한 전체 요약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25건 중 대부분의 사건이 10대 및 20대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단지 한 사례에 불과하였고, 15건이 20세 미만의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었다.

전체중 1건은 자살 사이트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었고, 다른 1건은 촉탁 살인이었으며, 나머지 23건이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건들이었다. 동반자살을 빙자하여 여학생들을 유인해내고 성추행을 한 1명과 살인을 저지른 또 다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51명이 자살 사이트로 인해 자살의도를 행동화했거나 행동화하려했다. 이들 51명중 남자가 26명, 여자가 25명이었는데, 성별에 따른 발생 빈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22.42세($SD=5.86$)이었으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35세의 남자였으며,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은 12세의 여자 어린이였다. 살인이나 성추행을 행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

<표 1> 자살 사이트로 인한 자살 및 피해 사례 요약

번호	성별 및 연령, 사망 여부	유형	자살 방법
1	1(남,19) ³ , 2(남,29) ⁴	촉탁 살인	홍기로 살해
2	3(남,28) ¹ , 4(남,21) ¹ , 5(남,26) ¹	동반 자살	독극물
3	6(여,12) ¹	단독 자살	목울 맴
4	7(남,34) ¹ , 8(남,31) ¹	동반 자살	독극물(청산가리)
5	9(남,29) ¹ , 10(남,26) ¹ , 11(여,17) ⁴	동반 자살	독극물
6	12(남,13) ¹	단독 자살	투신
7	13(남,15) ¹	단독 자살	독극물(농약)
8	14(남,14) ¹	단독 자살	독극물(제초제)
9	15(남,33) ¹ , 16(여,20) ¹ , 17(여,19) ¹	동반 자살	독극물(청산가리)
10	18(남,26) ¹ , 19(여,23) ¹	동반 자살	독극물
11	20(여,17) ¹ , 21(남,22) ¹ , 22(여,27) ¹	동반 자살	독극물(제초제)
12	23(남,28) ² , 24(여,16) ¹	동반 자살	독극물(제초제)
13	25(남,27) ⁶ , 26(여,12) ⁶ , 27(여,14) ⁶	성추행	
14	28(남,26) ¹	단독 자살	독극물
15	29(남,34) ¹ , 30(여,15) ¹ , 31(여,16) ¹ , 32(남,25) ⁸	동반 자살	투신
16	33(여,25) ²	동반 자살	독극물
17	34(여,18) ¹	동반 자살	투신
18	35(남,25) ¹ , 36(남,19) ¹ , 37(남,19) ¹	동반 자살	베기가스
19	38(남,23) ¹ , 39(여,19) ¹	동반 자살	베기가스
20	40(남,27) ² , 41(여,26) ² , 42(여,25) ³	동반 자살	독극물
21	43(남,25) ¹ , 44(남,25) ¹	동반 자살	독극물(청산가리)
22	45(여,23) ¹ , 46(여,22) ¹	동반 자살	독극물
23	47(여,17) ¹ , 48(여,19) ¹ , 49(여,19) ¹	동반 자살	투신
24	50(남,27) ¹	단독 자살	독극물
25	51(여,21) ¹ , 52(여,20) ¹ , 53(여,22) ³	동반 자살	독극물

주 1 = 자살시도로 사망, 2 = 자살시도로 중태, 3 = 중도 심경 변화, 4 = 촉탁에 의해 사망, 5 = 촉탁 살인, 6 = 성추행 피해, 7 = 성추행, 8 = 심경 변화 및 자살방조

살 의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검토했을 때의 평균 연령은 22.39세 (SD=5.92)이었는데, 여자의 평균 연령(M=19.36, SD=4.12)이 남자의 평균 연령(M=25.31, SD=5.97) 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F=15.85, p<.001$), 표준 편차도 작았다. 여성들의 경우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자살 행동이 유발되었던 것에 비해, 남자들의 경우는 보다 광범위한 연령대에서 자살 행동이 유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동반 자살 여부

총 25건의 사례중에서 8건의 사례만이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나머지 17건은 촉탁살인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었고, 동반자살 인줄 알고 나갔다가 성추행을 당한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모두 누군가와 함께 죽음을 택하려한 경우에 해당했다. 단독 자살을 택한 8명을 제외한 나머지중, 38명이 동반자살을 시도했거나 성공했고, 2명이 동반자살을 하려다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으며,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던 사람중 1명은 그들과 수차례의 동반 자살 시도 실패 끝에 결국 마음을 바꾸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살을 그만두자고 설득하였으나 끝내 실패하자 자살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다. 1명은 살인을 촉탁했다.

(3) 자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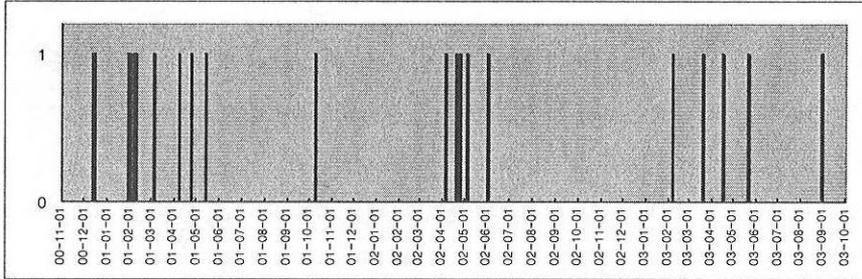
총 25건의 사례중 성추행 사례를 제외하고 직접적인 자살 시도와 관련된 24건중에서 16건이 음독자살이었고, 투신자살이 4건, 배기가스를 이용한 자살이 2건, 목을 맨 경우가 1건, 촉탁이 1건이었다. 음독 자살의 경우 독극물로는 청산가리와 농약이 주로 사용되었다.

(4) 자살의 완료 여부

24건의 자살 시도가 있었고, 51명이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 중 2명은 자살 시도를 위한 만남에서 성추행을 당하였고, 1명은 심경변화 끝에 자살 방조를 하였으며, 4명은 자살을 실행에 옮기기 바로 직전에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자살을 그만들었으므로, 구체적으로 자살을 실행하려고 한 사람은 44명(남 24명, 여 20명)이었다. 이들 44명안에서의 성별에 따른 발생 빈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살을 통해 사망에 이른 사람은 모두 39명(남 21명, 여 18명)이었는데, 사망자 내에서의 성별에 따른 발생 빈도 차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2) 시점에 따른 발생 빈도 분석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의 발생은 2000년 12월에서 2001년 5월까지, 2002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2003년 2월부터 5월까지에도 집중되어 있었다. 언론에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에 대한 보도가 나고 나면 한동안 꾸준히 발생되었다. 잠시 휴지기를 거친후 다시 누군가에 의해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이 시작되면 또 다시 한동안은 자살이 계속 되었다. 시점에 따른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의 발생은 아래의 그림1과 같다.



[그림 1]. 시점에 따른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및 비행 사건의 발생 빈도

2. 자살 사이트 운영자와의 면담 내용 분석¹⁾

다음의 내용은 비구조화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 자살시도자와의 면담 내용을 연구자가 내용별로 범주를 정하여 다시 재정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사용한 단어나 어구를 그대로 포함하려고 하였다. 정리 방법은 Ely(1991), Huberman 과 Miles(1994)를 참조하였다.

1) pro-자살 사이트 운영진과의 면담

(1) 자살 사이트의 개발 및 운영

① 자살 사이트 운영진의 결성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집단 치료 모임을 통해 만난 선배와 친구 그리고 피면담자가 모여서 자살 사이트를 만들었다. 당시 선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친구와 내담자는 통원 치료중이었다. 병원 모임에서 자주 접하다 보니 서로 친하게 되었

1)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일부 정보는 의도적으로 은폐되거나 모호하게 기술되었다.

고, 담당 선생님께서 밥사준다고 하여 나가보니 선배와 친구 그리고 피면담자 그렇게 셋이 나와있었다. 선배와 친구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였으므로 서로 어울려서 미친짓도 많이 하고 그랬으나 피면담자는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었다. 그러나, 그들과 자주 어울려 PC방에서 만나곤 했다. PC방에서 야한 것, 엽기적인 것, 무서운 것을 찾아서 웹 서핑을 하다가 자살 사이트도 발견하면서 친구가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다. 선배가 아이টে을 대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친구가 해킹을 맡는 등 두 사람이 주된 역할을 하였고, 피면담자는 돕는 역할을 담당했다. 주운영진인 세 사람이외에도 자살 사이트의 구축을 돕는 아이들이 더 있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내원 사유에 대해 피면담자는, 선배는 헤비메탈 음악을 듣고 싶어했으나 부모님이 못하게 하여 결국 본드도 하고 가스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② 자살 사이트의 개발 및 운영

선배는 엽기 사이트로 만들자고 했다. 자살에도 엽기가 많다. 다른 사이트엔 없고 우리 사이트에만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성취감을 주었다. 좋은 자료 하나 건지기 위해서 외국 사이트를 알파벳 “a”부터 하나하나 검색해나가면서 뒤졌다. 사이트를 만드는 일 때문에 늘 밤을 새웠고 학교에선 잠만 잤다. 선배와 친구는 잔인한 것, 자살할 때 죽는 기분등을 광고하자고 하였다. 일본인들이 자살을 즐긴다고 해서 일본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살에 관한 잔인한 동영상도 찾아내고 손목을 긋고 따뜻한 물에 담그는 이야기나 옥상에서 무비카메라 들고 뛰어내리고 그러는 등의 이야기도 수집해서 우리 사이트에 올렸다.

하루에 조회수가 1000건에 이를 만큼 방문자가 많아지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우리가 PC방에서 처음 접했던 자살 사이트의

일일 방문자수보다도 우리 사이트의 방문자수가 더 많을 정도였다. 우리 학교 근처 애들 사이에선 우리 사이트가 아주 유명했다.

죽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외국 사이트에서 찾아내서 우리 사이트에 올렸는데, 만 몇건 정도의 조회 건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친구는 한번에 100원만 받아도 돈이 되겠다고 하였고, 선배는 일단 맛을 들이게 한 후 돈을 받자고 했다.

③ 자살 사이트를 통한 직접적 자살 유도

대화방에 “죽고 싶다”고 올리면 선배가 직접 대화를 하였다. 그런 말을 올리는 아이들이 쉽게 죽는 방법을 물으면 선배가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

④ 자살 사이트의 중단

신고를 받은 경찰의 조치로 중단되었다. 선배가 사람들에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양심적인 아이여서 이러한 사이트의 존재를 알면 신고를 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반장에게 그 사이트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결국 핵심적 운영자 역할을 맡았던 선배가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정신과 치료 경력의 덕을 보았다. 당시 같이 일했던 친구는 금품 갈취로 인해 처벌 받고 있는 중이다.

(2)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및 가족적 배경

① 개인적 특성

가. 인적 사항

만 1*세의 남자 대학생으로 군입대 계획중이었다.

나. 자살 시도 경험

총 3번이 있었다. 중 2 때 부모님께서 결별을 한다고 하셔서 마치 고아가 될 것 같은 기분에 첫 번째 자살을 시도했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다가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려했는데 친구들이 말려서 그만두었다 두 번째 자살 시도는 고 3 때 있었는데 생활이 무료해져서 아스피린을 과량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같은 반 아이가 계속 시비를 걸기에 몇 번인가를 참아 넘겼는데도 계속 시비를 걸어와 끝내 싸움을 벌이고는 담임 선생님한테 찍혀서 학교를 3주를 안나가고 나니 생활이 무료했다. 편하게 죽고 싶었다. 물론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세 번째 자살 시도는 대학 1학년때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에 있었다. 손목을 그었는데 동맥이 안 상해서 죽지 않았다.

다. 행동적 문제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 것 같던 중2때부터 비뚤어지 시작했다. 오토바이 폭주족을 했었고, 싸움도 많이 했으며, 불량씨클도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간적도 있다. 성격이 욱하는 면이 있기는 해도 큰 싸움을 벌이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두분 부모님이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는 큰 싸움을 종종 벌였다. 고 3 올라갔었을 때는 30대 직업깡패들과 싸움이 나서 피면담자를 포함한 친구들 모두 크게 다쳤던 경험이 있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피면담자 일행이 잘못하였고 그 까닭에 많이 맞았다. 피면담자는 손과 발이 부러졌고 친구는 갈비뼈가 4대 부러졌는데 피면담자의 부모가 여행중이어서 직접 통장에서 돈을 꺼내 해결을 했다. 당시의 친구들은 현재 직업 깡패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님께서 결별한다고 하실 때는 영영 화해를 하지 않으시

는 줄 알고 집을 나와서 며칠간을 지냈다.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나로 인해 부모님은 화해를 하셨고 아빠가 집나온 피면담자를 찾아오셨기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부모님께 인간적으로 무시당한 것 같은 생각에 한달간 집에 안들어간 적도 있다. 동생은 유학가고 싶다는 말꺼낸지 3주만에 곧 호주 유학을 보내주었는데, 피면담자에 대해서는 보내줄 것처럼 하면서 안보내준다. 미국갈 짐까지 다쌌는데 유학을 안보내주었다. 초등학교, 중학교때부터 외국 유학가서 영화 연출 공부하고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친구가 친한 선생님을 모셔왔고, 그 선생님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집에 들어갔지만 부모님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고3때 시험끝나고 나서 아빠와 충돌했을때는 아빠차를 5일 정도 끌고 나가서 안들어온적도 있다.

라. 심리 치료 경험 유무

고2 5월부터 고3 1월까지 개업의가 운영하는 유명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고2때부터 욱하는 성질 때문에 선생님과 많이 싸웠는데 그럴 때면 아빠는 엄마보고 정신과 좀 데려가라고 하셨고 피면담자는 자신이 미친 것도 아닌데 그러시니까 싫다고 했었다. 다만 여자 친구도 같은 권유를 하여 결국 정신과를 찾았다. 한번 가보았을 때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실망스러웠지만 계속 정신과를 다니다보니 마음이 누그러지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고3때 큰 싸움을 벌일때도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마. 자신이 기술하는 성격적 특징과 주요한 스트레스 대처 방략

욱하는 면이 강하다. 친구중 누가 잘못했다 싶으면 무조건

때려주곤 했다. 화가 많이 날 때 사용하는 마인드컨트롤 방법을 당시 다니던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배운바 있다. 친한 사람들은 피면담자보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들 한다. 스트레스는 하루종일 참다가 저녁에 PC방이나 오락실에 가서 해소한다.

바. 친구 관계

중1때 왕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긴장한 친구들이 막아주기는 했으나, 그때부터 다양한 운동을 시작했다. 친한 친구와는 형제와도 같이 모든 이야기를 다한다. 중3때 전학을 왔는데 그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친구 하나도 같은 학교로 전학을 왔다. 고1때부터는 결국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되었다. 여자친구에게만은 화를 낸 적도 없었고, 손을 잡기까지도 200일이나 걸렸으며, 같이 얘기하는 것이 좋아서 많은 얘기를 했었다. 친구들이 화나는 전화를 해도 여자친구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야 상소리해가며 다시 전화를 하곤 할 정도였다. 여자친구를 사귄 때는 성격도 많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여자 친구가 명문국립대에 합격하게 되면서부터는 하위권의 대학을 다니던 내담자에게 뼈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었고, 여자친구는 처음엔 싫다고 했었지만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

② 가족 관계

부모님은 이혼하시는 분위기 였는데 피면담자의 첫 번 자살 시도 후 그것이 계기가 되어 두분은 화해를 했다. 피면담자의 아버지는 자기 생각이외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대화를 한다고 하여도 이미 피면담자의 아버지가 결론을 내려놓고 그걸 강요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피면담자의 아버지와는 중3때부

터 사이가 급격히 나뉘었다. 피면담자와 피면담자의 아버지는 서로 골프채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아주 과격하게 싸운다. 피면담자는 엄마와도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피면담자의 여동생은 호주에 유학중이다. 자신도 동생처럼 외국으로 영화 유학을 가고 싶으나 가정형편을 생각해서 자제중이다. 그러나, 동생은 쉽게 외국을 보내주고 자신은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서 외국 유학을 보내주지 않으시는 부모님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

③ 학교 생활

그전의 학교에서는 그럭저럭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를 했는데, 중3때 전학을 와서는 꼴지를 했다. 밤에는 내내 놀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학교오면 늘 잠을 잤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수업 시간에는 늘 엎드려서 잠을 잤으며 보고서나 과제물은 친구들이 대신 해주었다. 영화 감독에 대한 꿈으로 인해 중간고사 기간에도 영화연출 책을 4번이나 읽은 적도 있다.

2) anti-자살 사이트 운영자와의 면담

(1) anti-자살 사이트의 운영 과정

① 안티자살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계기

다른 자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운영진이 되었고, 글을 많이 남긴 까닭에 투표를 통해서 결국은 그곳의 운영자가 되었다 그 사이트가 강제 폐쇄되면서 이 커뮤니티로 옮겨왔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글을 많이 남기다보니 운영진에 포함되었고 결국은 운영자가 되었다. 원래 이 곳을 만든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18세) 가끔 들어와서는 죽고 싶다는 글에, '죽는 게 쉽

나' 정도의 간단한 답변만 다는 정도로 활동이 뜸했기에 운영자의 교체가 필요하던 상황이었다.

② 자살 사이트의 가입 이유

죽고 싶어하던 친구가 먼저 자살 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 힘들어하는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친한 친구라는 상황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의 일환으로 자신도 같이 자살 사이트에 가입했다. 자신이 자살 사이트에 가입했음을 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그 사이트에 올린 친구의 글에 익명적 존재로서 힘이 될만한 글들을 남겼었다.

③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이 된 이유

자살 사이트 게시판에 오른 친구의 글에 답글을 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글에도 답글을 달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개인적인 이메일을 주고 받게 되었다. 힘들 때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다. 그런 좋았던 기억 때문에 이전에 운영을 맡았던 자살 사이트가 폐쇄 조치를 당한 후 이 사이트를 찾아 다시 가입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답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피면담자가 나서서 답글을 올리며 운영자도 할 마음을 먹었다.

④ 안티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우

예전에 누군가가 자살을 생각하며 가입을 했다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그후 자살 안티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적이 있다. 느낀 이야기를 몇 개 한 것 뿐인데 피면담자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기다려지고 고맙다고 답장을 해오면 행복하다.

⑤ 운영자로서 해당 사이트에 대해 갖는 포부 수준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름대로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기에 죽음의 길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살 사이트에 가입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해당 사이트가 회원들이 자기의 고민도 털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런 곳이 되기를, 힘들 때 일기장에 쓰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기를 바랬다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다.

⑥ 게시판의 글들에 대한 판단 및 대응

자신의 상황을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살고 싶은 뜻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응답을 해주면 금새 안티자살로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들의 글에 안티자살 글을 달아주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죽겠다는 글을 단도직입적으로 올리는 사람은 게시판에서 다시 보기 어렵다. 약을 구하거나 하는 글은 발견 즉시 삭제했지만 너무 많이 올라올 때는 삭제에 역부족을 느꼈었다.

⑦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경우

아무약이든 죽을수만 있는 약이면 다 좋으니 약 좀 구해달라는 메일을 받으면 매우 난감했다. 또한, 게시판에 자살할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리는, 자살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웠다

⑧ 자살 사이트의 주요 활동 연령대

10대가 제일 많았다. 고등학생, 중학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정도인데, 20대 초반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⑨ 자살 사이트로 오게 만드는 주요 원인들

청소년들이 토로하는 문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부모와 관련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호소하는 내용이 제각각이지만 그 내용들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부모님과과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령,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실까 싶은 것이 더 큰 원인이고, 형제들중에서 혼자만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 부모님보기에 면목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 부상으로 인해서 실력이 떨어진 운동 선수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다친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더욱 괴로웠다고 했다. 부모님의 기대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힘든 부분이다.

⑩ 회원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순간

자기 나름대로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있는데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방향 아닌 방향을 하다가 제일 나중에 떠오른 단편적인 생각이 자살이다.

⑪ 자살 사이트 게시판의 메시지에 대한 운영자의 생각

저 정도면 참아낼 법도 한데 저런 것도 못 참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까 싶은 내용이 많다.

⑫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

속을 보면 그냥 고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도 들어주는, 그냥 다른 고민에 대하여 들어주는 사이트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이 본 사이트이다. 자살 사이트라고 불리워지는 사이트들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가는지조차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적인 폐쇄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⑬ 자살 사이트 관련 보도가 해당 자살 사이트에 미치는 영향
 뉴스에 자살 사이트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나면 회원이 증가했
 다.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⑭ 자살과 관련된 전문상담 서비스에 대한 의견

상담을 받음으로서 뭔가 문제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담전문가는 필요없고 우리끼리
 도 잘 해낼 수 있다. 학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살아온 경험을 가
 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만일 연구자가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
 고 자살 사이트안에서 활동을 하였더라면 모두들 싫어했을 것이다.

(2) 운영자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 및 가족적 배경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이메일 질문에서 피면담자는 자살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일거라고 추
 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문하였다. 자신은 감성적인 면이 많
 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 역시
 화목하다고 밝혔다. 피면담자는 만 20세의 사무직 근무중인 여자
 회사원으로서, 부모님은 한때 별거중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함께
 살고 있으며, 피면담자 또한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라고 했다.

3) 자살 사이트의 내현적인 심리적 기능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한바 있는 전형적 자살사이트들은 자
 살이라는 제목하에 잔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경우가
 많았다. 첫 화면부터가 죽음과 관련된 공포를 유발시키며 콘텐츠

의 대부분이 상당히 시각적이다. 자살하는 장면에 대한 동영상, 자살자의 노트, 사망진단서, 칼라사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시각적 자료이외에 물론 게시판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게시판에는 자살 의도등이 게시되곤 했다. 자살 사이트는 화면 구성이나 메시지 내용등 전체적인 구성 요소들이 모두 매우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서 안티 자살 사이트들은 사이트 전체의 구성이 자살 사이트들 만큼 유목적적이지 않은 했다.

그러나, 자살 사이트에 대한 규제 조치와 더불어 대부분의 자살 사이트들이 폐쇄되면서 그러한 형태의 전체적 사이트보다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하나의 게시판 형태로 존재하는 사이트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① 금지해제

공격적인 장면을 자주 접하다보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억압해오던 공격추동을 더 이상 억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마음놓고 더 많은 공격성을 표현하게 된다(최정훈 등, 1986). 엽기 사이트에서 다루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많다. 엽기 사이트를 처음 접할 때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불쾌감과 놀라움을 경험하였으나, 현재는 엽기사이트의 유행에 따라서 빈번히 엽기적인 소재들을 접하게 되면서 오히려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을 서로 교류하려는 경향을 보이게까지 되었다.

자살 사이트도 마찬가지이다. 자살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살 의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자살 사이트는 접근

하는데 큰 노력이 들지않고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빈번히 접속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자살과 관련된 충동이나 생각들을 점차적으로 억압하지 않게 될 수 있다.

② 사회학습

Bandura(1977)에 의하면, 사람들은 특정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받지 않은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을 할 수 있다. 관찰학습에서 학습은 빠르고 쉽다. 관찰 학습에서는 주의과정, 과지과정, 산출과정, 동기화과정의 네 단계를 거치며 새로운 행동이 습득된다고 본다(Bandura, 1986a). Bandura등(1963)은 학습에 있어서 모방의 역할을 실험적으로 연구하면서 공격적인 모델을 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자살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과 관련된 생각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종 정보들을 대하게 된다. 따라서, 자살하는 장면에 대한 동영상을 접하거나, 혹은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하는 일은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에게 비해서 높은 주의 수준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는 높다.

③ 활성화 확산

Collins와 Loftus(권준모, 이훈구, 이수정, 1998, 재인용)에 따르면, 특정 개념이나 범주들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 흔적들은 고리들의 연결로 표상이 되는데, 이러한 연결 고리들은 명제의 형태로 변형되어 저장되는 과정에서 서로 의미론적으로 가까운 연결 고리들끼리는 더 강한 통로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한 개의 연결 고리가 활성화되면 그 주변의 연결 고리들에게도 이 활성화 효과가 퍼져나게 된다.

자살 사이트에는 죽음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자료들이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죽음과 관련된 여러 게시물들을 접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살 의도를 강하게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하더라도, 죽음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다른 생각이 점화가 되고 결국 자살 생각을 가지게 될 기회를 높여준다.

④ 사회적 지지

Sarason, Levine, Basham 과 Sarason(1983)은 사회적 지지란 내가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와 이들로부터 자신이 받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보았다. Cohen과 Hoberman(1983)은 개인이 지각하고있는 사회적 지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여, 정서적 지원과 정보 제공 그리고 실질적 자원의 제공에 의한 지지 등을 사회적 지지의 기능으로 포함하였다(Cohen & Hoberman, 1983). 한편, Kessler, Price 와 Wortman(1985)은 사회적 지지를 구조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로 나누고, 구조적 요소란 각 개인이 집단에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있는가의 여부, 사회적인 접촉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가, 사회활동에는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가 등 사회적 그물망의 특성을 말하며, 기능적 요소란 긍정적 정서나 정서적 지지의 표현, 신념이나 느낌에 대한 동의의 표현, 격려, 후련감, 충고나 정보의 제공, 물질적 도움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Kessler, Price, & Wortman, 1985).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과정에 작용하여 스트레스 평가를 예방해주기도 하고, 행동적 대처의 단계에서 작용하여 스트레스에 대하여 재평가하게 하고 적응적 대처 행동을 추진하게 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산이지만(송중

용, 1988; Cohen & Wills, 1985), 자살 사이트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바로 올릴 수 있고, 정보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 손쉽게 답을 구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Cohen과 Hoberman(1983)이 언급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측면들이 자살 사이트에서는 간단히 충족된다. 자살 사이트 운영진의 이야기를 보면, 선배는 죽고 싶다는 글이 올라오면 비록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는 해도 바로 대화에 나서고 있었다. 얘기할 데가 없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비록 자살 사이트의 죽음을 향한 대화도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3. 국내외 검색 엔진 혹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자살 사이트 검색 및 분석

1) 검색 엔진을 활용한 자살 사이트 검색 및 분석

“자살 사이트”, “안티자살”, “자살예방”, “자살”이라는 검색어로, 검색 엔진중 google, naver, empas를 사용하여 검색을 실시하였다.

(1) ‘자살 사이트’를 검색어로 이용한 검색

① 웹로그

검색 엔진을 이용한 결과에서 국내의 한 웹로그(Weblog)에

있는 일종의 자살 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웹로그 전체가 자살 사이트를 표방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검색에서는 직접적으로 자살을 논하는 웹페이지가 발견되었다. 해당 웹로그 전체는 운영자의 개인적 관심사들, 예를 들면, 음악회, 커피, 창의성, 사진, 우울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색체를 강하게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고, 글자 폰트를 크게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래픽을 활용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극히 무난하고 평범한 느낌을 주는 그곳은 주제의 선정이나 제시 방식, 글을 통해서 운영자의 독창성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었다. 자살에 관한 웹페이지로 들어가는 링크 또한 어느 한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었고, ASH가 포함된 제목 또한 상당히 함축적이었기 때문에, 최상위 웹페이지에서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웹페이지로 찾아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페이지 자체를 꼼꼼히 읽어야 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인 방문자들은 연구자와 같이 검색 엔진을 통해 자살에 관한 해당 웹 페이지로 바로 찾아들어가려는 방식을 택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자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웹페이지는 comment 시스템을 통해 로그 작성자들끼리 생각을 주고 받게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발생되고 있었다. 웹페이지의 제목아래에 "Suicide 101: Lessons Before Dying(Scheeres, 2003)"이 링크되어 있었고, "You don't know if they quit ASH or if they're dead."와 "인터넷은 분명 무서운 곳입니다..."라는 글만이 적혀있었을 뿐 그 웹페이지에 관한 저자 자신의 구체적 견해는 전혀 소개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누구든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그곳에서는 코멘트의 내용 또한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대부분은 자살과 관련된 글이 등록되고

있었다. 그 곳에 등록된 글들은 크게, 자살하고 싶을 만큼 삶이 힘들다는 감정적 토로, 자살을 해서는 안된다는 설득, 자살에 필요한 약물을 구한다는 공고, 동반자살을 하자는 권유, 청산가리나 수면제를 제공하겠다는 공고, 청부살인을 비롯해서 원하는 것은 도와주겠다는 공고로 나뉘어져 있었다.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기고 있었다.

자살 사이트들이 통상적으로 그렇듯이 웹 게시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남긴 새로운 코멘트는 그 페이지의 가장 위로 올라오는 형식이 취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관련 댓글을 중심으로 군집을 형성하고 있지 않고 각각이 개별적 메시지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메시지들간의 공개적인 상호작용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 곳에서 각각의 글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밝히는 경향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토론은 없었으며, 자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게시판을 통해서 소개되어 있지도 않았다. 물론, 죽고 싶다는 호소를 위한 위로와 공감을 담은 코멘트가 올라오는 일도 거의 없었다. 코멘트를 읽고 서로 원하는 것이 맞는 상대를 발견하면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도 있을 따름이었다. 물론, 그 웹페이지의 운영자는 장소만 구성하였을뿐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보이지 않았다.

② 방명록

자살과 무관한 듯 보이는 웹 사이트의 방명록일지라도 자살과 관련된 글이 오르면 즉흥적으로 상호작용이 발생하곤 했다.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게시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방명록의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하

지 않아도 글을 올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을수도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높았다. 방문자가 많은 웹사이트의 경우는 방명록을 드나드는 사람의 수효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 의도를 밝힌 글이 오르고 나면 자살을 격려하는 글과 자살을 막으려는 글들이 바로 연이어 올라오기도 했다. 자살 사이트에 대한 공개적 폐쇄로 인해서, 자살 사이트에 모여들던 글과 그로 인한 댓글들이 산발적으로 아무 방명록에나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지식거래소

지식거래소에서 자살과 관련된 질문이 등장하면 그에 대한 지지글이 오르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지식거래소를 통한 자살 관련 상호작용은 그다지 빈번하지도 않았고 활발하지도 않았다.

(2) ‘자살 예방 사이트’를 검색어로 이용한 검색

①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 <http://www.csp.or.kr/>
비공개 상담 제공.

② 생명의 전화 : <http://www.savelife.or.kr/>
비밀상담, 채팅상담.

두곳모두 상호작용이 가능한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 방문자들은 자살 예방에 대해서 상담 전문가와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3) ‘안티자살’을 검색어로 이용한 검색

한때 활발히 운영되던 정신과 의사의 안티자살 사이트의 링크는 끊겨있었다. 안티 자살 사이트를 매개로 한 자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살 사이트 뿐만 아니라 안티 자살 사이트 또한 자살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어 공개적인 안티 자살 사이트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2) 커뮤니티 검색을 활용한 자살 사이트 검색 및 분석

검색 당시 대부분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자살’, ‘죽음’을 금치어로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자살 사이트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상에서 직접적으로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자살과 죽음을 금치어로 규정해놓은 한 대형 포털사이트의 카페 검색을 실시하자 수면제를 검색어로 이용했을 때, 자살과 관련된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자살을 표방하는 사이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이트의 이름은 무의미 철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분류코너는 상관없는 곳에 있었으나, 수면제를 입력하면 자살방법을 논하는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었다.

죽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는 글, 동반자살자를 구하는 글, 혹은 약물 구입 방법을 묻는 글등이 있었는데, 자신의 이메일과 더불어 연락처를 남겨놓은 경우가 많았다. 적극적인 안티 자살도 별로 없었고, 단도직입적인 의사교환의 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살 방법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약물 구입처도 소개되어 있었으며, 동반 자살 회원 모집도 상당수 있었다.

글을 올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없이 죽는 방법을 알고 싶

어 했다. 구구절절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동반자를 구하기를 원했다. 전적으로 자살 사이트를 표방하고 있지 않았고, 의견공유의 장으로서 커뮤니티내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커뮤니티 검색을 통한 자살 사이트의 탐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자살 관련 커뮤니티의 존재 여부가 단속 방침과 맞물려 계속 변화한다는 점이었다. 단속의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경우는 그 즉시 포털 사이트들의 운영 지침이 영향을 받았고 관련 커뮤니티들이 제재를 받았다.

4.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및 기타 역기능적

인터넷 이용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변인들

안티 자살 사이트의 심리적 기능들은 모두 체계적인 예방 계획으로 포함되게 되면 바람직한 것들이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살 사이트가 아니라도 인터넷 상에서 건강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지지 집단이 있다면 자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① 지지집단

지지집단은 공통의 조건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전문가나 동료 지도자에 의해 지도되고, 구체적인 치료 목표에 따라 조직되며(Cope, 1995), 자조 집단과 치료 집단의 가운데 정도의 위치를 차지한다(Schopler & Galinsky, 1993). Lieberman(1988)에 따르면, 지지집단은 희망을 심어주고 정서적

지지와 자신감을 제공하며 심리적 문제와 신체적 문제들을 경감시켜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른 사회적 지원이 없거나 제공되는 지지가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질 경우 지지집단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황숙연, 박병우, 이경식, 2000. 재인용).

안티 자살 사이트는 지지집단은 아니지만 상당부분에서 지지집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 Yalom(1993)이 말하는 집단 심리 치료의 치료적 요인중에서, 희망의 고취, 보편성, 정보전달, 이타심과 같은 부분은 안티 자살 사이트에서도 성취될 수 있다.

② 사회적 지지

자살 사이트를 찾는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사회적 지지의 추구인 만큼 건강한 사회적 지원 구축은 중요한 예방책이 된다. 이영준(2000)의 연구에서도, 동호회/카페 게시판의 이용은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전자우편 교환과 동호회/카페 게시판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안티자살 사이트의 경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온정적이고 자살을 방지하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시판에 오른 호소의 글에 대해 응답하는 회원이 전혀 없을 경우라도 운영진이 이를 대신 담당하게 된다.

대개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힘들다는 글을 올리면 곧 격려의 글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을 올린 사람은 후련함과 동시에 정서적 지지를 경험을 할 수 있다.

공 백

V. 논 의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의 예방을 위한 방안들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

공 백

V. 논 의

1. 연구 결과의 요약

1)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의 개괄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 본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32개월간 발생한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들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6개월간 관찰한 사례(문성원, 2002a)에서 23.28세이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 포함된 자살 시도 및 자살 완료자들의 평균 연령은 22.39세 였다. 여성들의 경우 자살을 시도하려한 사람의 평균 연령이 19.36세로 평균 연령 25.31세를 보인 남성 시도자들에 비해 훨씬 더 어린 연령에서 자살이 시도되고 있었고 표준 편차도 낮았다. 즉, 남자들은 광범위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과 관련되어 있었지만, 여자들의 경우는 비슷한 또래 연령대에서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30세가 넘는 피해자는 모두 남자였었다.

그러나, 6개월간의 사례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당시 연구에서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19.75세였고 남성들의 평균 연령이 24.94세였으므로 성별에 따른 평균 연령은 유사했으나, 여성들의 경우 당시에 비해 표준 편차가 증가했다. 즉, 성별에 따른 자살 시도 연령은 시간이 지나도 비슷하게 유지되었고, 현재도 여전히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광범위한 연령대에서 자살이 시도되고 있었지만, 여성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서는 자살을 시도하는 연령대의 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동반 자살 경향성은 6개월간의 사례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총 25건의 사례중 8건의 사례만이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용이성이 자살을 위한 의사소통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에서 접속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특정인과의 상호작용이 시작되게 되고, 이러한 활동들이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인터넷인 만큼 인터넷의 이용자들은 자살을 위한 즉흥적 집단 구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불안한 상황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성향으로 인해, 손쉽게 동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인터넷의 환경적 조건을 자살 상황에도 활용하려는 경향이 점차로 굳어져 가고 있는 듯 했다.

자살 방법의 경우는 문성원(2002a)의 연구에서 보다 다양화되었다. 문성원(2002a)의 연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이 독극물을 자살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배기 가스 이용 자살이 새롭게 등장했고, 투신 자살의 빈도도 증가하였다. 또한, 각각의 방법은 적어도 1회 이상 발생하고 있었다.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라는 인터넷의 장점은 큰 어려움없이 외국의 풍부한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하여주기 때문에 누구든 원하기만 한다면 자살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해외 자료들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정보에의 노출은 그 정보를 활용한 행동의 발생빈도를 높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살 방법의 시도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고 나면 그와 유사한 자살 방법을 이용한 자살 사례들이 뒤를 잇는 경향이 있었다. 향후라도 누군가가 새로운 자살 방법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한다면 짧은 시간내에 그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한 사례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살에 관한 외국의 자료들을 보면 대개 시도는 약 4 배 정도 여성이 더 많이 하고, 실제로 자살에 성공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약 3 배 정도 더 높으며, 남성들은 더욱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여성들은 극약을 이용한 자살을 더 많이 하는데(APA, 2002; NIMH, 2002), 본 연구에 포함된 사례들을 보면 자살 시도율과 자살의 완료율에 있어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6개월간의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들에 관한 문성원(2002a)의 연구에서, 여성들에 비해 약 2 배 정도로 많은 수의 남성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에서 여성의 시도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터넷 이용 실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6개월간의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들에 대한 분석(문성원, 2002a)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 이어진 변화 양상은, 한국 인터넷 정보 센터의 2001년 '인터넷 이용자 실태 조사'와 2003년 6월의 '인터넷 이용자 실태 조사' 사이에 나타난 변화와 관련성이 높았다. 2001년에는 남성 인터넷 이용자가 여성에 비해 훨씬 많았다면, 2003년에는 여전히 남성 인터넷 이용자가 많기는 하여도 그 차이가 2001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들의 인터넷 이용이 증가되면서 여성들의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시도의 정도도 함께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인터넷 이용 정도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자살 시도율이 더 빠른 증가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이 마치 인터넷으로 인해 파생된 한 현상에서 자살의 한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에 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하여 확인해낼 수 있겠지만,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여성들의 인터넷 이용이 지금보

다 더 활발해져서 성별간에 정보 기술 이용 격차가 거의 미미해 진다면 인터넷 출현 이전의 전통적인 자살 사례들이 그러하듯 여성들의 자살 시도가 남성들의 자살 시도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혹은 인터넷 매개 자살이 유행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인터넷과 자살의 측면 모두에서 새롭게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자살 유형이 되어감을 의미한다.

2)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살펴 본 자살 사이트의 존재 현황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에 대한 분석이 자살 사이트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을 다룬 것이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살 사이트 검색은 표면적이기는 하지만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및 비행의 뿌리와 그 뿌리의 진화 과정을 탐색해나가는 작업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검색을 통해 살펴본 자살 사이트들은 정부의 규제 조치를 피할 수 있도록 은밀한 형태를 갖추는 경향이 많았다. 검색에서 손쉽게 걸리지 않도록 자살과 무관해 보이는 곳의 한 부분으로서 개설이 되거나, 방명록이나 지식 거래소등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끼리 산발적으로 자살에 관한 집중적 의사소통을 형성하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 자살 사이트가 존재하기 보다는 자살을 위한 신속한 방법론의 교환과 도구 제공 및 습득의 장, 그리고 동반자 모집의 장으로서 존재하는 경향이 많았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자살을 위한 메시지 교환은 산발적으로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발생하고 있

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어도 여전히 인터넷에서 독극물 거래를 위한 메시지가 교환되고 있고 원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해주겠다는 글이 등록되고 있음을 연구자가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은 가장 놀라운 점이었다. 자살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는 오히려 자살을 위한 의사소통이 다양한 형태를 띠도록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사이트의 성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이용자들끼리 자발적으로 의사소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용자 측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이 자살 관련 정보를 얻거나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는 검색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보였다.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과 충동에 대한 세심한 개입 계획 없이 실행된 규제 정책은 오히려 역으로 자살 충동을 실현해내려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안티 자살 사이트 활동들은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드러나있는 자살 예방 사이트들은 초창기의 안티 자살 사이트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안티 자살 사이트라기 보다는 인터넷에 개설된 위기 상담 창구에 가까웠다. 초창기의 안티 자살 사이트가 가지고 있던 최대의 강점은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살을 막고 또 그렇게 해서 자살 생각을 그만둔 사람들이 새롭게 자살 충동 호소 회원들을 지지해주는 것이었으나, 그러한 자유로운 메시지 교환 기능으로 인해 동반 자살팀이 구성되고 자살에 필요한 독극물등이 교환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점이었던 만큼 현존하는 자살 예방 사이트들은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살 예방 사이트를 통한 자살 발생은 줄일 수 있으나, 해당 사이트에 매력을 느끼는 이용자

의 수요가 전형적 안티 자살 사이트에 비해 훨씬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의 예방 효과는 전형적 안티 자살 사이트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전형적인 안티 자살 사이트 활동의 주축이 정신건강 전문가들보다는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의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 기술 및 심리학적 고려가 수반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자살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순기능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3)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살펴 본 자살 사이트

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많은 현상들은 외집단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많은 심층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적 주체에 의해서도 탐지가 가능한 즉 공식적으로 드러나있는 부분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데, 자살 사이트 운영진 및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자와의 면담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있지 않지만 자살 사이트의 생성과 유지에 관한 많은 부분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1) 자살 사이트의 생성

자살 사이트의 생성은 인터넷 고유의 속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소통 채널의 제약과 혁신적인 정보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서 영역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측면과, 의사소통 채널의 제약으로

인한 감정적 금지 해제가(Moon & Han, 1996) 결합이 되면서, 자살이라는 금기시된 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증가된 폭력성과 연결되어 있었다.

면담을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자살 사이트는 ASH가 처음에 표방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에 대해서조차도 손쉽게 누군가와 생각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나 죽을 권리에 대한 옹호를 위해서 보다는 엽기 문화에 편승한 폭력성의 표출과 주의 획득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만들어져 있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된 자살 사이트의 경우도 단속으로 인해 해당 웹사이트의 외관을 통해 드러나는 노골적인 폭력성의 표출은 감소되어있었지만 죽고 싶다는 의도와 함께 죽자는 권유 그리고 죽음을 도와주겠다는 의향이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서 간접적이지만 자살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안티 자살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하여도 운영자나 이용자가 적극적인 안티 자살 활동을 벌이지 않으면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 의도를 운영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안티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의식중에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

자살 사이트가 자살을 이끄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자리해가고 있다면 폭력성에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항해낼 수 있는 감정적 그리고 인지적 준비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자살 사이트의 유지

계속적인 단속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여전히 자살 사이트는

존재하고 있었고, 자살 사이트로 인한 자살도 이어지고 있었다.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마음이 적절히 해소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자살 사이트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형태 변화를 통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죽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 그에 대한 반응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신속한 방법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살 사이트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 사이트의 형태가 초창기에 비해 보다 은밀해지고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전송 방법이 점점 지능적이 되어가고 있는 스팸 메일들처럼 자살 사이트들도 단속을 뛰어넘는 교묘한 존재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었다.

비록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메시지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자살 사이트에 이미 다른 사람이 올린 메시지를 읽으며 시간차이가 있기는 대인 의사소통 상황을 형성한다. 죽음을 주제로 한 이보다 더 빠른 의사소통 상황의 발견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가 밝혔듯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사이트 접속후 처음 접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서 향후 행동의 방향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3) 자살 사이트의 이용을 촉발시키는 문제 영역들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은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했고,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청소년들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다른 문제로 인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가족적 배경과 자살과의 관련성은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문성원, 2002a)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이다. 또한, 자살 사이

트의 운영진의 경우를 보면 건디기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의 경우 문제 해결 상황에서 현실 도피적 자살을 충동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자살에 대한 방법론은 첨단 기술과 관련되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원인은 전통적인 대면 공간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다.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자살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하여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무관하게 자살 사이트에 대한 이용 욕구는 그대로 남게 되어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적절한 대안을 고려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접속해 들어오는 것인만큼 자살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하여 심리적으로 건강한 다른 대응 방법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들 두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제 2, 제 3 의 자살 사이트를 찾게 될 수 있다.

(4) 자살 사이트에 대한 규제

자살 사이트 문제에 대한 현재의 유일한 공식적 대응 방법은 사이트에 대한 규제 정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그냥 서로 고민을 나누는 여타 사이트와 별로 다를게 없는 것이 자신의 안티 자살 사이트라고 밝히며 의사소통 내용에 대한 세부적 이해도 없이 무조건적인 폐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혹은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단순한 규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5) 자살 사이트 및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들

두 사람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두 사람과의 면담 내용에 대한 분석은 자살 사이트와 자살 사이트 이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먼저, 자살 사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운영자들이 만나게 된 계기는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집단 치료 모임이었다. 피면담자는 낮은 정도의 좌절 인내력, 자극받기 쉬운 과민한 상태, 폭발적인 기질, 무모함등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과 잦은 싸움을 벌이고, 밤새도록 놀고는 기분에 따라서 학교에 가지를 않는 등 품행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고등학생 시절에 보이고 있었다. 피면담자를 비롯한 운영진에게 있어서 자살 사이트는 일탈의 또 다른 한 방법에 가까웠다.

피면담자가 평소 큰 싸움을 통해 상대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혔던 것처럼, 피면담자가 참여한 자살 사이트의 잔인한 동영상이나 자살을 돕는 상호작용은 그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감정적 상해나 생명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또다른 공격성의 표현이다. 그러나, 자살 사이트를 찾아다니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개별적인 인터넷 사이트들은 인터넷 개설자들의 개인적 의도와 특성을 뒤로 한채 단지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들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방문자들은 은연중에 자신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면대면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는 상대가 누구인지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자신을 향해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지의 여부도 즉각적으로 확인하게 되지만, 인터넷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눈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직접적인 육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발생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자살 사이트가 가지고 폭력성에 대한

인식이 인터넷 윤리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은 가족적 배경이 안정되어 있지 못했다. 부모님이 결별로 인해 자신의 처지가 고아처럼 될까봐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했는데, 부모님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모님과 피면담자의 관계 또한 원만하지 못했다. 피면담자의 아버지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구를 이용한 폭력도 사용하였으며 정서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안정되지 못한 가족적 배경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면담자뿐만 아니라 자살 사이트를 찾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일 수 있다. 가족적 문제는 개인적 성격 특성과 결합되면서 자살 사이트와 같은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식의 일탈 행위를 촉발시킬 수도 있고, 자살 사이트로 인한 희생을 유발해낼 수도 있다. 수직적 관계가 강조되는 부모 세대와 수평적 관계가 보편화되고 있는 청소년 세대간의 의사소통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가 중심이 된 부모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은 다른 곳에는 없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비단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이외의 부분에서 건강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탈의 한 양상으로서 자살 사이트를 운영했던 자살 사이트 운영진에 비해서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으로 안티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긍정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Yalom(2001)이 말하는 집단 치료의 중요한 치료적 요인이다. 안티 자살 활동을 통해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 자신도 치유적

경험을 했을 것이다.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안티 자살 활동을 전문가도 아닌 일반 이용자들끼리 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나이나 전문 지식의 정도에 비해서 전체 문제를 조망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보여졌다.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자의 운영 내용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 중심의 지지적 네트워크 모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2.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의 예방을 위한 방안들

1) 교육적 책략

자살 사이트를 비롯하여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로 인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정규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인터넷 이용자체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용 전달 방법이 인터넷 문화와 그다지 잘 부합되지 않는 전통적인 강의식에 가깝고, 교육의 내용이 특정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뿐 특정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흥미 유발의 정도가 낮고 교육의 효과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대처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럴 땐 이래야 한다 중심의 지침 나열은 일방적인 바른 생활 교육과도 같다.

인터넷 이용 교육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가

장 기본적인 내용을 인터넷 문화에 맞게 대상 학생의 눈높이로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대면 의사소통 상황과 의사소통 구조가 어떻게 다르고 그러한 구조적 차이는 의사소통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발생시키는지, 감정과 사고는 어떤 변화 과정을 겪는지, 그러한 변화는 각 상황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등을(Moon & Han, 1996, 문성원1999a,b) 학생들의 실제 감정 및 인지 체험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학습하게 한다면 인터넷이 왜 때로는 매우 위험해지는가에 대한 이해도 보다 더 손쉬워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의 마련도 자발적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인터넷의 제한적 의사소통 채널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단서등을 비롯하여 그 개인에 관한 많은 단서를 차단하여 인터넷 이용자들간에 평등한 메시지 교환이 가능해지도록 하여주기도 하지만, 무의식중에 모든 메시지 작성자의 심리적 건강 수준이 동일하기라도 한 것처럼 간주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역시 인터넷의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제각각의 개별적 메시지에 대해서 차별적 인식을 하는 일이 보다 더 쉽다. 인터넷 이용 교육을 통일된 하나의 교과과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학제적 컨소시엄과 학생들간의 지속적인 실험 프로그램이 기초가 되어야 가능하다.

다음 단계로, 인터넷에 대한 이해에 이어서 현 정보화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결핍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가정내 초기 사회화 과정의 약화로 인하여 가정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심리적 기술의 범위가 정도가 감소되고 있고,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인하여 학교에서도 역시 발달적으로 부합되는 심리적 기술들을 충분히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이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심리학 교과 과정을 역시 기본 교과과정의 일부로 개발하고 그 학습 과정의 한 부분으로 부모를 비롯한 최종적 양육책임자의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자체의 위험 요소 뿐만 아니라 가족 응집성이나 가족내 의사소통 정도도 역기능적 인터넷 이용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교육이 방법론적으로 학생들에게 익숙한 인터넷 상호작용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 효과는 높아질 수 있다.

인터넷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유능성의 강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서 현재와 같은 상황중심의 정보통신 이용 교육이나 네티켓등에 대한 교육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네티켓 교육은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티켓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술의 한 하위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자살 사이트 이용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자살 사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살 사이트를 찾는 사람들의 심리적 과정과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는 사람들의 가능한 심리적 과정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자살과 관련될 수 있는 정신병리나, 자살 충동이 사실은 죽음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문제 해결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내적 호소일 수 있다는 점을 알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Gonzales(Scheeres, 2003)의 사례를 보아도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Gonzales가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는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고, 본 연구의 피면담자도 자살 시도는 문제 상황을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혼

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살 사이트를 통해 동반자살 팀을 결성하게 된다면 동조압력이 생겨서 실제로는 원치않는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점(문성원, 2002a)을 반드시 사전에 알 수 있어야한다.

2)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연계가 된 자살 구호 체계의 마련

우리나라의 인터넷에는 누군가의 자살 의도를 발견하였을 때 어떤 방법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문가들간의 네트워크가 없다. 만일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면 누구든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를 할 수 있고, 적절한 처치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 결성된 체계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필요하다면 IP주소의 추적을 통해서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자살의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사이트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사이트에 대한 규제책 이전에 자살 관련 구호 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 더 우선적일 수 있다.

3) 이용자 중심의 지지적 네트워크 구축

안티 자살 사이트가 또래들만의 힘으로 상당 부분 효율적으로 존립했다는 점은 대안적인 안티 자살 사이트의 구축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안티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또래들로부터 지지를 전달받고, 또 자신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과

정은 치료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청소년들 중심의 안티 자살 사이트가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는 점은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의 예방과 관련하여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 기반을 둔 대인 관계가 사이버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중의 하나인 만큼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사소통보다는 일반인들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이 다루어질 수 있다면 이용자 유능성 강화의 측면에서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이용자 중심의 지지적 안티 자살 사이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그들 내부에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pool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안티 자살 사이트가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자살 연락장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구성 및 배열에 있어서도 전문적 고려가 필요하다. 가령, 보편적인 인터넷 게시판의 운영은 회원들끼리 그 어떤 종류의 의사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뮤니티 운영 방식에서 내용만 안티 자살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안티 자살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자살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여 그 사이트 내에서는 집중적인 안티 자살 활동만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메시지 교환 방법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Greist 등은(1973, Zarr,1984에서 재인용)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같이 사회적으로 일탈된 행동을 기술함에 있어서 컴퓨터는 판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성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인터넷은 심리적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즉, 위험 요소만 최소화된다면 또래 집단 중심의 안티 자살 네트워크는 자살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자리해갈 수 있다.

지지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하여 Barak(2001)의 SAHAR를 참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배경이 되고 있는 제도적 뒷받침에서 차이가 많이 있고, SAHAR내에도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을 비롯한 인터넷의 유해성에 접근해가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관점들과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적 네트워크 개발에 있어서 고려해볼 만하다. Barak(2001)은 자살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서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즉각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정서적지지 서비스인 SAHAR를 제안하였다. 특별한 훈련을 받고 전문적으로 지도자문을 받고 있는 비전문가 도우미들의 자원 봉사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서비스는 정보적 웹사이트나 이메일 대화방, 토론방 등을 통해서 전달된다. 도우미들은 웹에서 공개 모집되는데, 교육적 배경은 없어도 되나, 실무 경험은 반드시 가져야하며, 성격적으로 따뜻하고 감성적이며 이타적이어야 했다. 또, 컴퓨터도 잘 다루어야 했는데, 이들은 대면 교육과 온라인 시뮬레이션을 함께 받는다. SAHAR는 인터넷이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다양한 정서적 고통, 특히 자살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 정보를 공개하고 어려움을 공유한다.

4) 자살 사건의 언론 보도에 대한 지침 마련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시점에

한 사건이 발생하면 여러 사건들이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았다. 자살과 관련된 세부적 정보가 공개되면 될 수록 모방범죄의 발생 비율이 높다. 특히, 취약한 개인은 언론을 통해 소개된 구체적인 자살 방법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Keith & Williams, 2001). 인터넷에서는 일단 특정 정보가 게시되고 나면 누군가가 강제로 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보다 강하고 지속적이다. Marsden(2001) 또한 자살은 전염되는 듯 하다고 했다.

Littman(1983; Keith와 Williams, 2001에서 재인용)은 자살을 보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자 자살 행동의 수가 줄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살사건의 보도 방식에 관한 법 지침의 보완이 자살 사건의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많은 사례를 다루지 않았다. 많은 사례를 다루지 않은 점은 전통적 연구 방법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외적타당도 문제를 떠올리게 하지만, 사례수를 확보해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터넷 현장은 기술적으로 계속 변화해나가고 관련된 현상들도 계속 변화해나가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Sudweeks & Simoff, 1999). 관찰 시점의 차이는 현상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를 시행하는 동안에도 자살 사이트 관련 현상들은 계속 변화해나갔기 때문에 자료 수집 시점에 따라서 자료가 계속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 만일 사례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이질적 사례들이 수집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자살 사이트와 관련된 현상들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례 중심의 연구가 계속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살 사이트로 인한 희생자 및 자살 사이트 그 자체와 운영자에 대한 연구에 이어 자살 사이트의 일반 이용자 중심의 연구가 후속될 수 있다면 자살 사이트에 대한 이해의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2000, 12, 31) 2000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http://www.khan.co.kr>(검색일 : 2001. 6. 1).
- 경향신문 (2002, 2, 24). '안티-자살사이트'에서 자살 모의.
<http://www.khan.co.kr>(검색일 : 2002, 3, 4)
- 권준모, 이훈구, 이수정 (1998).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통로: 사회
정보의 자동적 처리. 한국심리학회 지: 사회 및 성격,
12(1), 1-36.
- 문성원 (1999a). 컴퓨터에 의해 매개되는 의사소통을 활용한 심
리학적 서비스 모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
리치료, 11(1), 63-78.
- 문성원 (1999b). 제 11장. 사이버 공간과 상담. 한규석과 황상민
(편). 사이버 공간의 심리. pp.287-311. 서울 : 박영사.
- 문성원(2002a).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자살. 한국심
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61-485.
- 문성원(2002b). 위기의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적 쟁점
(공저)중.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167-199.
- 삼성출판사 (1986). 새 우리말 큰사전(제 4판 제 2권). p.2383.
- 송종용 (1988).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이중 과제의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연합뉴스 (2001, 12, 20). [성추행]자살 사이트서 만난 여중생들
성추행. 한겨레신문.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에서 2002, 3,
4 인출
- 이영준 (2000).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에서 지각되는 사회적지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자신문 2001. 10. 10일자 기사 : 어린이, 성인·자살 사이트 접속률 급증.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검색일 : 2002. 3. 4).
- 전자신문 2003. 10. 15일자 기사 : 청소년 60.4% "나는 사이버 중독".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검색일 : 2003. 10. 16).
- 조한혜정 (2000). N세대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연구의 방향: '발달 심리학'에서 '자아 형성학'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13(3), 1-8.
- 조희제(2001). 인터넷과 죽음, 즐거운 '오바'. <http://www.cultizen.co.kr/issue/sub.htm>(검색일 : 2003. 6. 1).
- 최정훈, 이훈구, 한종철, 윤진, 정찬섭, 오경자 (1986). 인간행동의 이해. 서울 : 법문사.
- 한겨레신문 2000. 12. 15일자 기사 : 인터넷 통해 자살 원하는 이 '촉탁살해'.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검색일 : 2002. 3. 4).
- 한겨레신문 2002. 4. 19일자 기사 : [자살] 되살아난 안티 자살 사이트 망령.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검색일 : 2003. 5. 1).
-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2003).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 행태 조사. www.nic.or.kr(검색일 : 2003. 8. 31).
- 한국일보 2003. 8. 31일자 기사 :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20대 여성 2명 음독.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검색일 : 2003. 9. 5).
- 한국일보 2000. 2. 2일자 기사 : [자살사이트] 자살방지사이트에서 만나 동반자살.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검색일 : 2003. 9. 5).
- 황숙연, 박병우, 이경식 (2000). 유방암 환자를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 연구. 사회복지연구. 15. 291-310.
- Alao, A. O., Yolles, J. C. and Airmonta, W.(1999). Cyber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56

No. 11, 1836-1837.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ASBS. FAQ part 1/4: Introduction <http://www.ashbusstop.org/intro.html>(검색일 : 2003. 8. 28).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andura, A. (1986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andura, A., & Ross, D., & Ross, S. A. (1963). Imitation of aggressive mode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66 No. 1*, 3-11

Barak, A (2001). SAHAR: an Internet-based emotional support service for suicidal people.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Psychology and the Internet: A European Perspective." Farnborough, UK.

Baume, P., Cantor, C. H. and Rolfe, A.(1997). Cybersuicide: The role of interactive suicide notes on the Internet, *Crisis. Vol. 18 No. 2*, 73-79.

Baume, P., Rolfe, A. and Clinton, M.(1998). Suicide on the Internet: A focus for nursing intervention?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Vol. 7 No. 4*, 134-141.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3*, 99-12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98*, 310-357.
- Collins, A., & Loftus, E. (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memory. *Psychological Review, Vol. 82*, 407-428.
- Connell, R.(2003). Net friends grill their lives in barbecue chamber of death. <http://mdn.mainichi.co.jp/waiwai/face/0302/21suicide.html>(검색일 : 2003. 2. 28).
- Cope, D. D. (1995). Functions of breast cancer support group as perceived by participants : an ethnographic study. *Cancer Nursing, Vol. 18*, 472-478.
- Dobson, R. (1999). Internet sites may encourage suicide. *British Medical journal, 319*, 337. Retrieved May 23, 2001, from ProQuest database.
- Ely, M. (1991). *Doing Qualitative Research: Circles within Circles*. London: The Falmer Press.
- Faiola, A. (2003. 8. 24). "Internet Suicides Plague Japan: Young People Make Death Pacts With Strangers", *The Washington Post*, p.A01.
- Fontana, A., & Frey, J. H. (1994). Interviewing.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361-376). SAGE Publications.
- Huberman, A. M., & Miles, M. B. (1994).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In N. K. Denzin & Y. S. Lincoln

- (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428-444). SAGE Publication.
- Janson, M. P., Alessandrini, E. S., Strunjas, S. S., Shahab, H., El-Mallakh, R. and Lippmann, S. B.(2001). Internet-observed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Vol. 62 No. 6, 478.
- Jones, S. (1999). *Doing Internet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 Keith H. and Williams. K. (2001). The connection between media and suicidal behavior warrants Serious Attention. *Crisis*, Vol. 22 No. 4, Editorial.
- Keith, H. and Williams, K.(2001). <http://www.hhpublish.com/journals/crisis/2001/ed-v22i4.html>.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 in psychopathology :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6, 531-572.
- Lieberman, M. A. (1988). The role of self-help groups in helping patients and families cope with cancer. *CA Cancer Journal of Clinician*, Vol. 38, 162-168.
- Marsden, P. (2001). Is Suicide contagious? A case study in Applied memetics. *Journal of Memetics - Evolutionary Models of Information Transmission*, 5. http://www.cpm.mmu.ac.uk/jom-emit/2001/vol5/marsden_p.html.(검색일 : 2003. 8. 25).
- Moon, S-W, & Han, J. (1996).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s*. paper presented at

- the KPA 50th Anniversary Conference. Seoul, Korea.
- NIMH. Issues to consider in intervention research with persons at high risk for suicidality. <http://www.nimh.nih.gov/research/index.cfm>
-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127-139.
- Scheeres, J. (2003). A virtual path to suicide : Depressed student killed herself with help from online discussion group. <http://www.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3/06/08/MN114902.DTL>(검색일 : 2003. 9. 1).
- Scheeres, J.(2003). Suicide 101: Lessons Before Dying. <http://www.wired.com/news/culture/0,1284,57444,00.html>(검색일 : 2003. 9. 1).
- Schopler, J. H., & Ganlinsky, M. A. (1993). Support groups as open systems : a model for practice and research. *Health and Social Work, Vol. 18*, 195-207.
- Smith, W. (2003). www.s-u-i-c-i-d-e.com : Suicide advocacy goes online. <http://www.nationalreview.com/comment/comment-smith061203.asp>.(검색일 : 2003. 8. 25).
- Weiner, B. (1980). *Human Moti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Yalom, I. D. (2001). 집단 정신 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해림 과 장성숙 역). 서울 : 하나의학사. (원전은 1993년에 출판).
- YTN. (2003). 11월 6일 뉴스. 여대생 2명 엽기적 살해.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311/06/YTN/>

v5426396.html

Zarr, (1984).Zarr, M. L. (1984). Computer-mediated psychotherapy : Toward patient-selection guideline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Vol. 38 No. 1, 47-62.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 · 구정화)
-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 · 김선아)
-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 조아미 ·
백지숙 · 유혜림)
-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 · 유승호)
-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
-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 · 권태희)
-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 · 전명기 · 이주연)
-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 · 노재봉)
-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 · 임영식 · 이진숙)
-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 · 문성호)
-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 · 김은경 · 김형주)
-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

- 03-R14 청소년 정보소의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남경희)
- 03-R17 가족복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중·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메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박효정·현주)
- 03-R40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김상호·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이금순·이우영·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김진호·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한만길·최영표·강영혜·오해섭·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조혜영·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김진호·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이경상·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읽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현)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윤철경·이상오·
황성하·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종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연구보고 03-R 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 분석

인 쇄 2003년 12월 15일

발 행 2003년 12월 15일

발 행 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 권 이 중

등 록 :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 (주)계문사 TEL.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2)2188-8877(자료실)

ISBN 89-7816-488-9(93330)

공 백

연구보고 03-R 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 분석

연구자 : 문성원(우석대학교 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연구 요약

자살 사이트를 크게 프로 자살(pro-suicide) 사이트와 안티 자살(anti-suicide) 사이트로 분류하고 그 정의와 기능 그리고 변천에 대해서 살펴본 후,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의 현황 분석과 자살 사이트 및 안티자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면담, 현존하는 자살 사이트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였다.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이 인터넷 관련 현상에서 자살의 한 방법론으로 변화해나갈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자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자살 사이트가 높은 수준의 폭력성 및 비행과 관련되어 있음과 자살 사이트 운영진의 심리적 취약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자와의 면담은 자살 사이트의 주된 방문 이유와 메시지를 통한 자살의도의 행동화 가능성 탐지, 그리고 안티 자살 사이트가 가질 수 있는 치료적 요인을 비롯하여 인터넷 시대에 맞는 자살 예방 활동의 형태 등 많은 정보를 남겼다.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적 전략과 자살 관련 응급 구호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계 체계의 개발, 또래 중심의 자살 예방용 지지적 네트워크 구축, 자살 사이트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있어서의 보완점 등이 논의되었다.

공 백

목 차

I. 서 론	1
II. 자살 사이트의 정의와 역사	11
1. 최초의 자살 사이트	13
2. 자살 사이트의 정의와 종류	14
3. 자살 사이트와 관련된 국내 외의 대응들	17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21
1. 연구의 개시 시점까지 발생한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와 자살 사이트 매개 비행중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례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 및 경향 분석	23
2. 자살 사이트의 운영이나 이용에 대한 사례 탐색 및 내용 분석	24
3. 국내외 검색 엔진 혹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자살 사이트 검색 및 분석	27
4.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및 기타 역기능적 인터넷 이용의 예망을 위해서 필요한 변인 탐색	28
IV. 결 과	29
1. 연구의 개시 시점까지 발생한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와 자살 사이트 매개 비행중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례에 대한 개괄적 분석	31
2. 자살 사이트 운영자와의 면담 내용 분석	35
3. 국내외 검색 엔진 혹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자살 사이트 검색 및 분석	49
4.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및 기타 역기능적 인터넷 이용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변인들	54
V. 논 의	59
1. 연구 결과의 요약 ..	59
2.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의 예방을 위한 방안들	70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76

표 차 례

<표 1> 자살 사이트로 인한 자살 및 피해 사례 요약	32
--------------------------------------	----

그림 차례

[그림 1]. 시점에 따른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및 비행 사건의 발생 빈도	35
---	----